

지역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지원정책 '한 눈에'

오늘 DJ센터서 '국가지원 설명회' 광주·기후에너지지원·광주TP 주최 환경규제 대응전략 특강 등 정보도 온실가스 감축·기업탄소액션 유도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9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이행 국가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다. 기업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해 △에너지 효율 혁신 선도 프로젝트(KEEP+)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등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또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가 '알이(RE)100 대응전략' 주제 특강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세계적인 환경 규제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책 변화에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광주시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 구축 등 산업부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기업탄소액션'을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모의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기업탄소액션이란 중소·중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모의 거래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서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시 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광주시는 앞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기업들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한 기업탄소액션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의 부대행사로 열리며, 지역 내 기업 및 업무담당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상이 기자 sanga.jeong@jnilbo.com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지원센터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이행 국가지원사업 설명회

행사개요

일시: 2025년 7월 9일 (수) 15:00-17:00 (온라인: 15:00-17: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1호 (광주광역시 중구 남대문로 30)

참가대상: 50인 이하 중소기업(95%)

사전신청: 오픈형 사전 QR코드 링크

주요내용

- 중소기업 RE100 대응전략 ·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 중소기업 탄소중립 이행 지원사업 소개
- 한국에너지공단 · 도원석 (에너지사업팀 팀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김희정 (에너지사업팀 팀장)
- 한국환경공단 권유진 (ESG경영부 차장)
- 2025년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대전 관련 (차유연장)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OCOO 광주광역시에너지지원센터, CO-C 광주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주최: 중소기업진흥공단

문의: T. 062601.1377, E. gmginfo@jnilbo.or.kr

현대자동차·기아, 'UX 스튜디오 서울' 개관

세계 최초 상시 고객 참여형

현대자동차·기아는 최근 현대자동차 강남대로 사옥(서울 강남구 소재)에 'UX 스튜디오 서울'을 개관하고 사용자들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경험을 설계하는 참여형 연구 거점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2021년 서초구에 개관한 기존 'UX 스튜디오'를 이전, 완전히 새롭게 단장한 것으로 현대차·기아가 추구하는 모빌리티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의 핵심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객 접근이 용이한 강남대로 사옥에 들어서게 됐다.

기존 'UX 스튜디오'는 현대차·기아의 상품, 디자인, 설계 등 담당 연구원들이 차량 UX 개발 과정에 활용하던 사내 협업 플랫폼이었다.

UX 연구의 핵심인 사용자 조사 역시 일부 특정 고객을 초청해 비공개로 운영해 왔다.

새 단장을 마친 'UX 스튜디오 서울'의 가장 큰 변화는 고객 누구나 모빌리티 개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연구 플랫폼이 됐다는 것이다.

방문객들은 UX 스튜디오에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자유롭게 경험하고, 선행 UX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차량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견이 제품에 반영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여러 완성차 업체도 다양한 형태의 고객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일반 고객이 차량 UX 개발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연구 플랫폼은 UX 스튜디오 서울이 세계 최초의 사례다.

'UX 스튜디오 서울'은 크게 UX 전시 콘텐츠를 체험하고 리서치에 참여할 수 있는 1층 '오픈랩'과 몰입형 UX 연구 공간인 2층 '어드밴스드 리서치 랩'으로 구성된다.

현대차·기아는 방문객들의 원활한 전시 체험과 리서치 참여를 위해 전문 가이드가 공간별 주요 콘텐츠에 대해 설명하는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세 소개 및 프로그램 예약은 UX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DV(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술도 체험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UX 인사이트' 구역에서 참가자들이 UX 연구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광주·전남 상장법인 6월 시가총액 6조5천억 증가

한국거래소 증시동향

광주·전남 상장법인의 올해 6월 시가총액이 전달보다 25% 증가했다.

8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광주·전남 상장법인 37개사의 시가총액은 32조2963억원이다.

전월 대비 6조5333억원 약 25% 증가한 것으로, KOSPI는 같은 기간 대비 13.9% 늘었다.

지역 시가총액 증가액 중 한국전력이 5조7456억원으로 87%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개사의 시가총액은 27.4% 증가한 30조5449억원, 코스닥시장 22개사 시가총액은 332억원 감

소한 1조7514억원이다.

지역 투자자 거래대금은 3조7418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4539억원, 63.5% 증가했다.

시가총액 증가율 상위 3개 종목은 유가증권의 경우 한전KPS(39.1%)·한국전력(29.5%)·대우에이텍(19.9%), 코스닥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파루(43.7%)·남화토건(12.7%)·서산(5%)이다.

최권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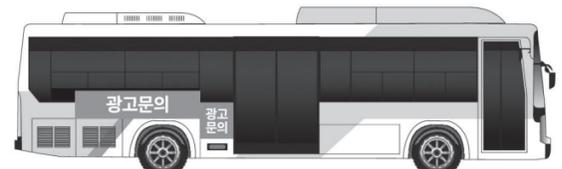
광주 시내버스 광고

全南日報 와 (주)가온엔 이 함께합니다.

차도면 대형·중형·저상·좌석버스 (현대/대우)



인도면 대형·중형 (현대/대우)



후면 대형·중형·저상·좌석버스·전기차 (현대/대우)



연간이용객 3백 90만명



차량 인가대수 1,040대



운영노선 101개 급행 6개 | 간선 31개 | 지선 64개



광주버스 1일 왕복 횟수 7~9회

문의 전화

062-366-5002